

노인의 활동수준과 대인관계의 상관성

김희정, 김보은, 김은선, 신다은, 이소영, 정혜림

가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 국문초록 —

목적 : 본 연구는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와 관련된 요소인 활동수준과 대인관계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015년 5월 28일부터 2015년 8월 26일까지 부산 및 울산 지역에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74명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 RCS), 한국형 활동분류카드(Korean Activity Card Sort, K-ACS)를 실시하였다.

결과 : ACS 총점과 민감성은 .326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수단적 일상생활활동과 민감성이 .287,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과 만족감이 .277으로 다음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사회활동은 대인관계의 하위항목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 일상생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여가활동을 즐기는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의 만족감, 이해성, 민감성, 개방성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인 인구는 단순한 의료의 지원을 통한 복지 이상의 활동 참여이나 대인관계와 같은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와 삶의 질과 관련된 요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노인, 대인관계, 대인관계 변화척도, 한국형 활동분류카드, 활동수준

I. 서론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662만 4천명으로 전체의 13.1%를 차지한다(통계청, 2015).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지난 2007년 7.2%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향후 2018년에는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Choi, 2014). 노인의 삶의 질 문제는 고령자의 증가에 따라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여가는 노년기에 일정한 사회적·가정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가한 시간과 은퇴와 죽음의 과정 사이에서 일정한 역할 없이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특히 노인의 여가는 후자인 경우가 많다. 노년기는 퇴직, 자녀들의 결혼 등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기로 다른 연령층과의 여가와 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정신적, 심리적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Kim, 2012). 더구나 노인들은 배우자와 형제, 자매, 주변인들의 죽음과 현대사회의 핵가족이 증가하면서 대인관계의 범위가 축소되며

교신저자: 정혜림(hyerimhome@hanmail.net)

접수일: 2016. 05. 31. 심사일: 2016. 06. 13. 게재승인일: 2016. 06. 27.

로 노인에게 집단 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Choi, 2007). 여가활동은 강제적이지 않은 활동이라고 정의되나 개인적인 행동에 대한 자유, 필요에 의한 상황에 따른 행동이다(Cushman & Laidler, 1990; Rossman & Schlatter, 2008). 이처럼 여가는 단순히 남는 시간을 한가롭게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에게 자기표현과 자기창조, 나아가 자아완성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삶의 또 하나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Kim, 2012). 또한 여가활동은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의 위험을 줄여주는 등(Paillard-Borg et al., 2009), 건강과 웰빙을 가져오는(Iwasaki, 2007; Lynch et al., 2007) 노화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노년기의 사회활동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대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사회단체가 개인에게 부여한 역할들은 노년기의 사회적 역할 상실을 보장해 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함으로써 개인의 가치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여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Han, Kim, Won & Lee, 2001).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신체적 요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심리적 요인에는 우울, 인지기능 및 자기 효능감, 사회적 영역에는 경제활동 참여여부, 월 소득, 사회적지지 및 여가 시간, 신체적 요인에는 만성적 건강 상태, 기능적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및 건강실천 행동 등이 지적되고 있다(Han, Han & Moon, 2009). Havighurst와 Albrecht에 의해 주장된 활동이론은 노년기의 활동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에 의하면 인간의 대인관계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보다 성공적 노화가 높게 나타났다(Kim, 2008). 대인관계는 포괄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이 개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자기 이외의 개인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하며, 또는 어떤 생각하기를 기대하는가 등 개인 대 개인의 관계 형성이 바로 대인관계이다(Ahn, 1984). 사회참여는 개인과 사회 환경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Desrosiers et al., 2002), 또한 신체적 기능에 영향을 받는다(Nakanishi & Tataru, 2000).

이러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성공적 노화에는 활동 참여와 대인관계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의 활동참여와 대인

관계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작업치료 영역에서 클라이언트 활동 및 작업영역 측면의 접근은 폭넓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노인의 활동수준과 대인관계의 상관성을 알아보고 활동참여와 관련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2015년 5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일반적 노인의 기준인 65세 이상 7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를 연구자가 직접 만나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중 대인관계변화척도는 자기보고 형식을 사용하였고, 활동 분류 카드에서는 면담형식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활동분류카드에서 남녀 간의 차이는 독립 *t*-검정을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1) 대인관계 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 RCS)

Schlein과 Guemey(1986)의 대인관계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를 Jeon(1995)이 수정 보완한 대인관계변화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7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뉘며 총 25개의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대단히 그렇다(5점)'까지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며 최저점은 25점이고, 최고점은 125점 범위이다. 하위영역으로는 만족감(satisfaction 4문항), 의사소통(communication 4문항), 신뢰감(confidence 3문항), 친근감(intimacy 3문항), 민감성(sensitivity 2문항), 개방성(openness 5문항), 이해성(understanding 4문항)의 7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대인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신뢰도는 0.68~0.84이다(Kim, 2012). 대인관계변화의 하위영역별 항목은 Table 1과 같다.

점수 계산은 전체 항목의 평균점수가 1점대이면 대인관계점수가 매우 낮고, 2점대이면 낮은 편, 3점대이면 중간, 4점대이면 좋은 편, 5점대이면 매우 좋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형 활동분류카드(Korean Activity Card Sort, K-ACS)

활동분류카드는 노년기의 작업활동 수준을 사진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평가하는 도구이다. 활동분류카드는 노인의 포괄적인 작업 및 활동에 대한 참여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1995년 미국에서 최초로 개발되었다(Baum & Edwards, 2001). 이 평가 도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활동 수준의 평가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현재 뇌졸중, 시각 장애 등의 다양한 질병과 연령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Baum, 1995).

본 연구에서는 Lee 등(2010)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활동 분류 카드인 K-ACS의 지역사회 거주형을 사용하였다. 개발된 한국형 활동분류카드의 활동 목록은 총 67개였고, 수단적 활동, 사회 활동, 여가 활동의 세 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수단적 활동이 33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 활동이 16개, 여가 활동이 18개였다(Lee et al, 2010). 점수 계산 방식은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 사회활동, 여가활동의 각각의 현재 활동수준 =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현재도 하는 활동' + '예전보다 덜 하고 있는 활동' + '60세 이후 시작한 새로운 활동'의 합산 값과 과거

활동수준 = '예전에 하던 활동'의 합산 값이며 이것들의 총 점수 계산인 참여활동 보유율 = 현재 활동수준 / 과거 활동수준 × 100으로 계산되었다.

3.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SPSS 23.0 for windows를 통하여 전산 통계 처리를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활동수준, 대인관계 평가도구의 결과로 기술 통계를 사용하였다. 활동수준과 대인관계는 피어슨 상관 분석을 하였고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5으로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2와 같다. 전체 74명의 대상자 중 남자 45.9%, 여자 54.1%로 여자 대상자의 비율이 남자 대상자보다 많았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5.95세였으며, 연령은 65세~69세가 16.2%, 70세~79세가 51.4%, 80세~89세가 29.7%, 90세

Table 1. Items of RCS

RCS	Items
satisfaction	1, 2, 3, 4
communication	9, 14, 18, 19
trust	15, 23, 24
intimacy	5, 11, 16
sensitivity	6, 10
open-heartedness	12, 17, 20, 21, 22
understanding	7, 8, 13, 25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Frequency	Percentage (%)	
Age (years)	65~69	12	16.2
	70~79	38	51.4
	80~89	22	29.7
	90~	2	2.7
Gender	Male	34	45.9
	Female	40	54.1

이상은 2.7%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 중 70세~79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Table 2).

2. 대상자의 활동수준의 비교

본 연구 대상자의 활동수준에 대한 결과는 표3과 같다.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에서 전체점수는 60.58(±13.7), 남자 64.08(±14.39), 여자 57.61(±12.51)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은 .042로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가 활동 전체점수는 58.17(±14.48), 남자 59.96(±13.17), 여자 56.66(±15.50)으로 나타났으며, 사회활동 전체점수는

64.86(±20.46), 남자 66.95(±22.67), 여자 63.08(±18.47)로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3. 대상자의 대인관계의 비교

본 연구 대상자의 대인관계에 대한 결과는 표4와 같다. 대인관계 하위 항목 중 가장 높은 평균이 나온 것은 개방성 17.89(±3.57)이고 이해성 15.92(±2.56), 의사소통 15.73(±2.84), 만족감 15.05(±2.83), 친근감 11.93(±2.07), 신뢰감 11.15(±2.06), 민감성 7.41(±1.63)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Table 3. Mean Score of K-ACS

(N=74)

K-ACS	Male	Female	<i>p</i>	Total Score
IADL	64.08±14.39	57.61±12.51	.042	60.58±13.70
Leisure	59.96±13.17	56.66±15.50	.332	58.17±14.48
Social participation	66.95±22.67	63.08±18.47	.422	64.86±20.46
Total Score	63.64±12.45	58.28±11.84	.062	60.74±12.34

p*<.05, *p*<.01

Table 4. Mean Score of RCS

(N=74)

RCS	Score
satisfaction	15.05±2.83
intimacy	11.93±2.07
sensitivity	7.41±1.63
understanding	15.92±2.56
communication	15.73±2.84
open-heartedness	17.89±3.57
trust	11.15±2.06
Total Score	95.08±13.82

p*<.05, *p*<.01

Table 5. Pearson's correlations Between K-ACS and RCS

(N=74)

	satisfaction	intimacy	sensitivity	understandi ng	communicat ion	open-hearte dness	trust	RCS
IADL	.277*	.131	.287*	.210	.114	.212	.075	.203
Leisure	.144	.052	.272*	.232*	.176	.137	.118	.256*
Social participation	.186	.079	.227	.164	.104	.165	.147	.184
K-ACS	.247*	.118	.326**	.268*	.177	.235*	.153	.271*

p*<.05, *p*<.01

4. 대상자의 활동수준, 대인관계의 정도

Table 5는 활동수준과 대인관계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결과를 보면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에서는 대인관계의 '만족감', '민감성', '여가활동'에서는 대인관계의 '민감성', '이해성', 'RCS 총점'이 'ACS 총점'에서는 '만족감', '민감성', '이해성', '개방성', 'RCS 평균'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사회활동'에서는 대인관계의 하위항목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K-ACS 총점'과 '민감성'이 .326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수단적 일상생활활동'과 '민감성'이 .287, '수단적 일상생활활동'과 '만족감'이 .277으로 다음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5).

IV. 고찰

본 연구의 활동수준은 Lee et al. (2010)이 수정 보완한 한국형 활동 분류카드인 K-ACS를 사용하였으며, 대인관계는 Jeon(1994)이 수정 보완한 대인관계변화척도를 사용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의 활동수준과 대인관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 대상인 지역 거주노인의 활동수준 점수는 사회활동 64.86%,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60.58%, 그리고 여가활동 58.17%으로 Jung, Shin, Choi와 Kim(2015)의 연구에서는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64.46%, 여가활동 58.53%, 사회활동 57.70%의 점수로 각각 나타났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에서는 60.58%와 64.46%로 비교가 되며, 여가활동에서는 58.17%과 58.53%로 유사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활동에서는 64.86%와 57.70%로 비교적 큰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복지관 이용하기, 친목회 참여하기 등이 포함된 사회활동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Jung, Shin, Choi와 Kim(2015)의 연구에서는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은 노인들의 하루일과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비교적 적게 감소되기 때문으로 보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대인관계의 하위영역 평균 점수는 개방성 17.89, 이해성 15.92, 의사소통 15.73의 높은 순서

로 나타났고, 전체 대인관계의 평균은 95.08로 나타났다.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60~90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Chai, 2007)에서 대인관계 평균은 67.66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 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복지관은 노인 주간보호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에 비하여 인지나 신체적 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노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Chai(2007)의 연구 대상의 노인은 MMSE-K의 평균이 12.33점으로 인지기능의 제한이 있었다.

활동수준의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및 여가와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난 대인관계의 하위영역은 다음과 같다. '수단적 일상생활활동'과 대인관계의 '만족감', '민감성', '여가활동'과 대인관계의 '민감성', '이해성', RCS 총점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대인관계와 사회참여와는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활동 수준 총점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대인관계의 하위영역은 '만족감', '민감성', '이해성', '개방성', 'RCS 총점'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활동수준이 증가 할수록 대인관계가 증가하였다. 또한 활동수준이 높을수록 자신과 타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타인에 대해 관찰과 이해, 자신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과 대인관계는 .253으로 유의한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것은 여가활동이 대인관계와 상관관계가 높고 (Kim, 2012), 대인관계 친밀감과 여가활동 적극성간의 관계가 유의적으로 나타난다(Choi, 2014)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가설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인 활동수준과 대인관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작업치료사는 삶의 질을 가치 있게 여기고 클라이언트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돕는(Liddle & Mckenna, 2000) 활동과 작업 전문가이다. 작업치료가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활동은 평가와 중재 및 중재의 목표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의 삶의 질과 성공적 노화를 위한 필수 요소인 대인관계와 상관성을 가지는 활동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재고하고, 노인을 위한 중재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활동과 작업의 전문영역인 작업치료가 활동참여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할 때 노인의 삶의 질과 성공적 노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첫째, 연구에 대한 대상자의 표본이 크기가

작고 지역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노인
으로 일반화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
는 대상자를 지역별로 모집해 적절한 표본의 크기를 통
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활동수준
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파악하
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대인관계와 활동수준에 관한 연구
가 필요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부산, 울산 지역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의 활동 수준과 대인관계의 관계에 대해 알아
보았다. 그 결과 활동수준의 총점과 대인관계의 민감성
의 상관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여가활동을 즐기는 사람일수록 대인관
계의 만족감, 이해성, 민감성, 개방성의 점수가 높게 나타
났다.

노인에게 있어 활동참여와 대인관계란 단순한 일상생
활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나아가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평균수명이 증가됨에 따라 늘어나는 노인 인구는 단순한
의료의 지원을 통한 복지 이상의 활동 참여나 대인관계
와 같은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와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
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Reference

Ahn, B. (1984). *Validation study for scales relating to interpersonal relations adequ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Doctoral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Baum, C. M. (1995). *The effect of occupation on behaviors of persons with senile 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and their carers*. Dissertation. Washington University, St. Louis, Missouri.

Baum, C. M., & Edwards, D. F. (2001). *Activity Card Sort(ACS): Test-Manual*. Washington University,

St. Louis, Missouri.

Chai, R. H. (2007). *The effects of the Bibliotherapy on the Cognitive ability, Depression and Social Relationship among Korean Older Adults*. Hoseo University, Cheonan.

Choi, K. (2014). *The impact of leisure activities on the quality of life at the old age*.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Choi, S. (2007). *(The) effects of group counseling for using recollection on self-integration and object relations : old people using mainly welfare centers*. Master's Thesis, Seoul Graduate School of Buddhism, Seoul.

Cushman, G., & Laidler A. (1990). *Recreation, leisure and social policy*. Lincoln University, Canterbury, New Zealand (Department of Parks, Recreation & Tourism).

Desrosiers, J., Noreau, L., Rochette, A., Bravo, G., & Boutin, C. (2002). Predictors of handicap situations following post-stroke rehabilitation. *Disability & Rehabilitation, 24*(15), 774-785.

Han, S, Han, J., & Moon, Y. (2009). Factors Influencing Successful Aging in Elder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1*(4), 423-434.

Han, J., Kim, D., Won, Y., & Lee, G. (2001). Senior Volunteering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Gerontology.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4*(3), 45-67.

Iwasaki, Y. (2007). Leisure and quality of life in an international and multicultural context: What are major pathways linking leisure to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82*(2), 233-264.

Jeon, S. (1995).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for rehabilitation of the schizophrenic patients*. Doctoral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im, D. (2008).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lderly's Successful Aging Scal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0*(1), 211-231.

Kim, H. (2012). *The Influence of Activity-Oriented Music*

- Therapy up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of Rehabilitation Centers.* Master's Thesis, Seoul Jangsin University. Kyeong-Ki.
- Kim, J. (2012). *The effect of leisure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Kyeong-Ki.
- Kim, K. (2015). *Short-term Group Percussion Activity Program to Promote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Patients with Chronic Schizophrenia.*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S. H., Yoo, E.Y., Jung, M. Y., Park, S. H., Lee, J. S., & Lee, T. Y. (2010). Development of the Korean Activity Card Sor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8(3), 103-117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5). *201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 Jung, H, Shin H, Choi Y. & Kim K.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Fall Efficacy Activity Level in Older Adults. *Physical & Occupational Therapy In Geriatrics*, 33(1), 53-63.
- Liddle, J., & McKenna, K. (2000). Quality of Life: An overview of issues for use in occupational therapy outcome measurement.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47(2), 77-85.
- Lynch B. M, Cerin, E., Owen, N., & Aitken, J. F. (2007). Associations of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 with quality of life in a large, population-based sample of colorectal cancer survivors. *Cancer Causes & Control*, 18(7), 735-742.
- Nakanishi, N., & Tatara K., (2000). Correlates and prognosis in relation to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mong older people living in a community in Osaka, Japan. *Journal of Clinical Geropsychology*, 6(4), 299-307.
- Paillard-Borg, S., Fratiglioni, L., Winblad B., & Wang, H. X. (2009). Leisure activities in late life in relation to dementia risk: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Dementia and Geriatric Cognitive Disorders*, 28(2), 136-144.
- Rossmann, J. R., & Schlatter, B. E. (2008). *Recreation programming: Designing leisure experiences.* Sagamore Publishing LLC. Urbanan, IL.

Abstract

Correlation of Elderly Activity Level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Kim, Hee-Jung, PhD., O.T. Kim, Eun-Seon, Kim, Bo-Eun,
Shin, Da-Eun, Lee, So-Young, Jung, Hyerim.,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aya University

Purpose : This study attempted to observ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ctivity level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elderly people.

Method : This study implemented the Relationship Change Scale (RCS) and the Korean Activity Card Sort (K-ACS) on elderly people who use community welfare centers in the Busan and Ulsan areas from May 28, 2015 to August 26, 2015.

Results : Total ACS scores and sensitivity showed a high correlation with .326. Next,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sensitivity showed a high correlation of .287,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sense of satisfaction showed a high correlation of .277. However, social activities showed no correlation with the subcategori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nclusion : People who adequately carry out their roles in daily living and enjoy leisure activities showed high scor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understandability, sensitivity, and openness. This shows that it is necessary for elderly people to have interest in successful aging such as participation in activities that exceed welfare through simple medical support o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in demand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Key Words : Activity levels, Elderly peopl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ACS, RCS